

보도자료

2011년 2월 18일(금) 배포 시점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방송정책국 방송정책기획과 이상학 과장(☎750-2410)
방송정책기획과 차중호 사무관(☎750-2422) people@kcc.go.kr**방통위,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 의결****- KBS가 제출한 수신료 인상안을 첨부하여 국회 제출 예정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2월 18일 제10차 방송통신 위원회를 열어 KBS가 지난 '10.11.24일 제출한 "텔레비전방송수신료 금액 인상안"을 심의한 후, 이에 대한 방통위의 의견서 채택을 의결 했다.

방통위는 수신료 인상안에 대한 여러 차례의 심도 있는 논의 결과, KBS의 수신료 인상안은 재원구조 정상화를 통한 공영성 강화 라는 KBS의 발전 방향과 세계적인 공영방송으로의 도약을 위해 지향해야 할 콘텐츠의 질 향상에 미흡하고, 수신료 인상 근거도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으나, 수신료 현실화가 공영방송 재원구조 정상화의 첫 단추를 끼운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으며, KBS 이사회가 국민 부담을 감안하고 합의의결한 취지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수신료 금액을 KBS 이사회가 의결한 내용과 같이 월 1,000원 인상하되, 인상분은 타당성이 인정된 공적채무 확대방안의 성실한 시행과 프로그램 제작비 확대 및 상업 재원의 축소 등에 반영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방통위는 밝혔다. 아울러, 2014년에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이 필요하며, 단계적 광고 축소 및 채널별 회계분리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 수신료 금액 재산정 결과 및 공적채무 확대방안 검토 결과

(붙임)

■ 수신료 금액 재산정 결과

- 수신료 금액의 재산정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본운영에 따른 '14년까지의 중기 수지전망 부분에 '인건비 추가 절감 및 사업경비 10% 절감' 등 KBS가 제시하고 있는 자구노력 방안을 반영하고, 수입 및 비용을 '10년 실적을 가지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재추정한 후, 공적책무 확대방안 중 일부 삭감된 부분을 제외하고 계산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음
- 이러한 방법을 사용해 계산할 경우, 기본운영에 따른 중기 수지전망은 당초 KBS가 전망한 것과 달리 2014년까지 548억원의 누적이익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KBS가 공적책무 확대방안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제시한 예산 총 6,635억원 가운데 1,800억원의 예산은 절감이 가능한 것으로 계산되었음
- 따라서, KBS는 기본운영에 따른 중기 수지전망 상의 당기순손실과 공적책무 확대방안 수행을 위한 소요비용을 합하여 2014년까지 총 9,389억원의 적자가 추정된다고 밝히고 있으나, 우리 위원회에서 재산정한 결과 적자 금액은 6,284억원으로 감소하였음

■ KBS의 공적책무 확대방안에 대한 검토결과

구 분 (단위 : 억원)	KBS案			방통위 검토案	방통위 삭감액
	기본운영	공적책무	합계		
① 디지털 전환 완수	5,470	-	5,470	5,470	-
② 난시청 100% 해소	123	1,048	1,171	1,159	12
③ 무료 보편 서비스 강화	-	1,134	1,134	-	1,134
④ 공정하고 신뢰받는 KBS	20	52	72	52	20
⑤ 사회적약자 배려/디지털정보격차 해소	74	399	473	354	119
⑥ 고품격콘텐츠 중심 글로벌베스트 KBS	170	2,719	2,889	2,810	79
⑦ 공영성 강화, 상업성 배제	-	-	-	-	-
⑧ 지역방송 획기적 강화	7	645	652	564	88
⑨ 재난재해방송 등 국가위기관리기능 강화	-	193	193	193	-
⑩ 세계 속 한류 확산	65	445	510	150	360
합 계	5,929	6,635	12,564	10,752	1,812